

民族의 精氣가 서린 白頭山에 太極旗 휘날리며

천병식*

10년만의 폭염이라더니 연일 내리쬐는 8월 태양의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이 열기를 피해 평소 친분이 있는 지반공학 지인들과 함께 제 59주년 광복절에 즈음하여 民族의 精氣가 서린 靈山, 白頭山 등정을 하게 되었다. 아! 늘 가슴 한 켠 希願으로 머물러 있던 백두산을 이렇게 오르게 될 줄이야.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라기 보다 민족이 탄생한 산, 민족의 始原이 열리기 시작한 산이다. 한반도 모든 피의 근원으로서 백두산이 우리의 핏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근대의 사학자 육당 최남선의 말대로 이곳이 '단군의 誕降地요, 조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날의 감동이 생생히 전해지며 온 몸에 전율이 감도는 듯 하다. 그러면, 소풍을 앞 둔 어린 아이 마냥 잠까지 설치며 올랐던 백두산을 잠시 소개해 볼까 한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9일, 우리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 황해를 횡단하여 오후 두 시경에 北京에 도착하였고,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백두산에 제일 가까운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延吉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숙소를 잡고 뒷날의 거사를 준비하였다. 산 등정하는 것을 굳이 거사라고 표현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나, 우리 일행 중 한사람

이 백두산 천지에서 고사(?)지낼 북어 등을 이곳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압수당한 터라 처음부터 신경이 쓰였고, 특히 필자가 준비해간 태극기를 백두산 천지에서 무사히 휘날려야 한다는 일념까지 생긴 터라 이번 등정은 우리 일행들에게 거사 아닌 거사가 되어 버렸다(애국가는 물론 태극기 들고 사진찍다가 감시원 눈에라도 띄면 입장이 여간 난처해지는게 아니라며 사전에 가이드의 강력한 협조요청이 있었다). 이날 연길시의 저녁 날씨는 서울 보다 훨씬 선선하고 검푸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다음 날도 날씨가 그런대로 괜찮을 성싶었다. 하지만 연중 200일 이상 눈비가 내린다는 백두산을 더욱 7, 8월 우기에 오르게 되니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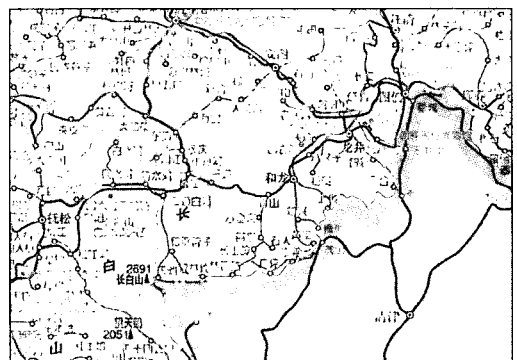


사진 1. 백두산 주변 지도

*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hengdang@unitel.co.kr)

닝쿨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일행은 석식을 일찍 마친 뒤 일찌감치 숙소인 大字호텔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다. 과연 백두산 천지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 곳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은 백두산 안내책자에 의하면 일년 중 백두산 등정이 가능한 시기는 6월말에서 9월말까지 약 3개월 가량이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일반인은 입산금지라고 한다. 그리고 등정 가능 시기 가운데 7~8월은 우기이고 이 기간에도 안개와 먹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거나 대낮에도 캄캄하거나 뿌연다고 한다. 그래서 천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은 고작 10%에 불과하며,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확률도 30%가 채 안된다고 한다.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다. 우리 일행의 소망이 하늘에 닿아 내일 천지를 꼭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던 지리산 천왕봉의日出을 보러갔을 때에도 이 정도로 간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드디어 날이 밝고 숙소에서 간단히 조식을 마친 우리 일행은 버스로 延吉을 출발하여 安圖, 松江, 二道白河를 거쳐 장장 여섯 시간만에 백두산 입구 山門매표소에 도착하였다(사진 1 참조). 다행히 전날에 비해 매우 쾌청하여 어젯밤의 기도가 상달된 느낌이였다. 이정도 날씨면 천지는 90%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가이드의 들뜬 설명이다. 도중에 二道白河에서는 차창 밖으로 美人松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여인의 다리를 연상하듯이 하늘을 향해 쪽쪽 뺨은 소나무를 보면 다소곳한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개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오로지 백두산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山門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받고 다시 버스로 20분 정도 가게 되면 천지행 쪼차 승차장이 있는 삼거리가 나온다(사진 2 참조). 이곳에서 8인승 쪼차를 이용하여 약 20분간 오르게 되면 천지가 코앞에 보이는 주차장에 도달하게 된다. 도보로 올라갈 경우에는 천지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쪼차 배정을 받기 위해 30~40분은 넉히 기다렸을 것이다. 기다리는 중에 혹시 갑작스런 일기 변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인지 서너 시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쪼차는 산악 도로를 굽이굽이 돌아서 오르는 데 차질 잘못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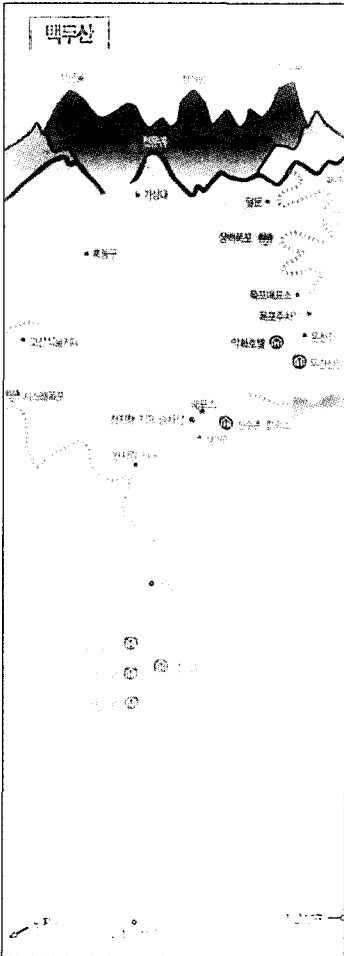


사진 2. 백두산 등정 코스

가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곡예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멀미가 날 듯 꼬불어진 산길도, 덜컹대며 총알택시 같은 속력을 내는 쥘차의 엔진 소리도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 장막을 건어 내듯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백두산의 장엄하고 성스러운 모습에 연신 감탄만 할 뿐! 남한의 산에서는 보기 힘든 고산식물들과 여기저기 자생하고 있는 이름모를 식물들이 태고의 모습을 유지하며 기기묘묘한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었다. 수목한계선을 넘은 것일까. 좀 전까지 푸릇푸릇한 기운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허연 빛깔의 浮石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높이 올라올수록 점점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천지를 드리울 먹구름은 하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어제 우리 일행들의 기원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다시 가슴이 두 방망이질 치며 한시라도 빨리 천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기상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쥘차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차가운 바람결에 잠바를 걸치고, 신발을 다시 한번 질끈 동여매고 天文峯을 향해 조금이라도 먼저 보려고 경쟁하듯 급경사를 십여분간 숨가쁘게 올랐다. 해발고도 2,670m의 天文峯. 이는 필자가 알프스산 말고는 이제껏 두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본 중, 가장 하늘에 가까이 닿은 높이다. 해발고도 1,950m의 한라산을 등정한 것이 종전의 기록이었으며, 서울에서 자주 오르던 837m의 북한산에 비하면 세 배 이상이나 되는 실로 엄청난 높이이다. 천문봉 정상으로부터 불어오는 찰 정도의 너무도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하였다. 순간 앞서간 일행의 입에서 '우~와!' 라는 탄성이 쏟아졌다. 천문봉 정상. 아! 지금 이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푸른 하늘 아래 동해바다 보다 더 푸르고 푸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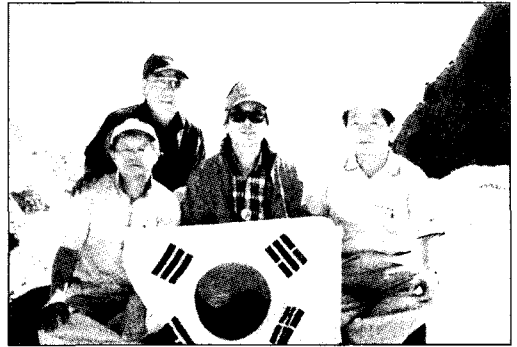


사진 3.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중앙이 필자)

천지가 태고의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채 반만년 역사의 숨결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래서 聖山, 靈山이라 하는가. 아! 진정 이곳은 天上의 庭園이란 말이던가! 16개의 봉우리가 천상의 조각품이 되어 천지에 발을 담그며 이 웅장한 호수를 에워싸고 있고, 깎아지른 단애와 푸른 고원산록과 신성스러운 이 호수와의 조화로운 모습은 거룩한 聖域 바로 그것 이었다. 檀君王儉으로 줄 잇는 민족의 생명이 이곳에서 始原하였고, 이 곳으로부터 바다 멀리 제주까지 국토의 맥이 줄 닿아 있으며, 민족 역사의 뿌리가 이곳에 터 잡고 있기에, 반만년 애환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동경의 聖山으로 숭상되어 온 것이 아닌가!

구름 한점 없는 쾌청한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였다. 가이드가 10년 가이드 생활 중 오늘처럼 쾌청한 날씨는 처음이란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일행에게 천지의 명쾌한 모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요즘 '고구려 역사 왜곡'에 傲氣로 우리는 미리 준비해 온 태극기를 안주머니에서 꺼내 활짝 펼쳤다(사진 3 참조). 비록 북어는 압수당했지만 대신 연길에서 오는 도중 휴게소에서 구한 백두산 장뇌삼과 진로 소주로 조출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간단한 禮를 올릴 수 있었다. 엄연히 우리 민족의



사진 4. 백두산 천지의 품에 안겨서



사진 5. 飛龍瀑布(長白瀑布)의 웅장함

정기가 살아 숨쉬는 이 곳 백두산에서 자유로이 태극기도 펼칠 수 없고 애국가, 만세삼창도 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지 않는가.

고대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 곳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성역으로 간주된 곳이며, 발해시대에는 영토 한가운데 위치하기도 한 엄연히 우리 겨레

의 얼과 혼이 깃든 곳이다. 그러다가 조선 숙종 38년에 청나라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백두산의 분수령인 높이 2,150m의 지점에 定界碑를 세우게 되니 여기서부터 역사의 아귀가 뒤틀리게 된 것이었다. 토문강과 두만강이 분명히 다른 데도 두만강이 국경선이 되면서 토문강 일대의 국토를 잃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의 세력 때문에 관철되지 못한 데다, 1909년 일제는 남만주 철도의 安奉線 부설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철도 부설권을 취하는 댓가로 백두산 주변의 間島땅을 넘겨줌으로써(간도협약) 간도지방인 延邊일대에 현재 우리 동포가 180만 명이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토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남북 통일이후 간도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주권환원을 주장할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생각해 낸 것이 요즘 마스크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고구려사 왜곡'과 '東北工程' 프로젝트인 것이다.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욱더 신장해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정말 백두산에 오르지 절로 애국자가 되는 듯 싶었다. 천상의 정원에서 우리 일행은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이 아름다운 비경을 한 군데라도 놓칠 새라 연신 우리의 카메라에, 눈과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담고 또 담았다(사진 4 참조). 주어진 30분은 어느새 훌쩍 지나고 사정사정하여 20분을 연장하였다. 그리고도 아쉬워 연신 뒤를 돌아다 보며 짚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내려왔다. 삼거리에 내려온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飛龍瀑布(중국인들은 長白瀑布라 일컫음)로 향하면서 조금 전에 가졌던 천지에서의 거사와 함께 靈山 백두산의 장엄함과 천지의 성스러움을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웅웅거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서 웅장한 비룡폭포가 천지를 진동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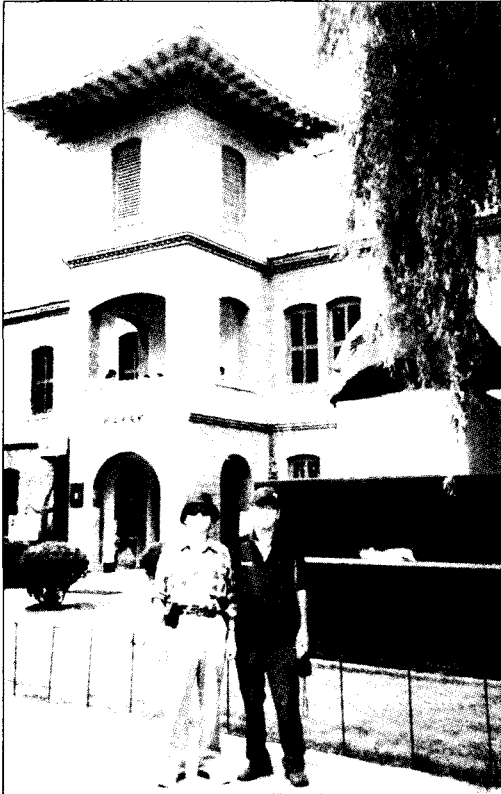


사진 6. 용정중학교에 있는 일제하 민족교육의 산실 대성중학교
 校舍와 우측에 尹東柱 시인의 詩碑

거쪽으로 협곡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사진 5 참조). 비룡폭포가 있는 곳의 함몰한 듯한 대협곡과 눈에 보이는 백두산 사면에는 한그루 나무도 없어 마치 사막 한 가운데 서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였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천지. 이 천지의 맑고 푸른 물은 북쪽 철벽봉과 차일봉 사이 한 곳만은 활짝 열려 있어 밖으로 힘차게 흐르고 있다. 천지의 물은 이곳을 통해 개활지로 흐르다가 이윽고 68m의長大한 폭포를 이룬다. 이 물에 발을 담그면 天壽를 누린다는 가이드의 말에 모두는 세수까지 하였다. 거대한 폭음이 몇 리 밖에서 울리면서 흰 물보라를 흘날려 공중

에 칠색 무지개와 백룡이 날아 내리는 듯한 절경을 이뤘다. 백두산의 면면들이 하나같이 웅장함에 다시 감탄을 연발 하며 우리 일행은 머지 않아 반드시 다시 한번 이곳을 찾을 것을 다짐하며 하산하였다.

비룡폭포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몇 군데의 온천군락을 볼 수 있다. 크기도 다양하여 어떤 것은 큰 그릇만 하고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종기만 한 것도 있는데 이도백하가 온천 사이로 요동치며 흐른다. 끓어오르는 유황온천은 주변의 돌과 모래들을 색색으로 물들여 놓아 오색 현란한 자연의 걸작품을 보는 듯 하다. 이곳의 온천은 고열 온천으로 최고 83℃까지 되어, 관광객에게 반숙달걀을 팔기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새벽부터 서두른 등정의 피곤함도 풀고 천지와 비룡폭포의 비경을 보고 아직도 뛰고 있는 가슴도 진정시킬 겸 溫泉浴을 하기로 하였다. 시설이나 규모는 국내 유명온천의 그것에 비할바 아니지만 백두산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아래 원시림 속에서 온몸을 던져 노천 온천욕을 즐기고 있으니 백두산의 정기를 그대로 다 받는 것 같고 조금 전의 천지에서서와는 또 다른 운치와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 노천온천수는 유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과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몸이 제법 나른해 진다 싶어 눈을 지그시 감으니 머릿속에서 태고부터 끝없이 펼쳐진 백두산의 장엄함과 천지의 거룩함이 다시금 맴도는 듯 하였다. 온천을 마친 후 우리 일행은 허기진 배를 안고 버스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숙소인 美人松호텔로 돌아가 정말 꿀맛 같은 단잠을 이루었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龍井시를 방문하였다. 3·1운동의 민족혼은 만주별판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었다. 이 곳은 일제의 억압에 쫓겨 고향땅을 등진 한민족이 타향살이의 설움을 겪은 곳이다. 조국에서 3·1운동이 일어



사진 7. 용정중학교 2층에 위치한 '용정중학교 력사 전람관'

난지 12일 뒤 3·13만세운동이 펼쳐진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곳이고 원로 소설가 박경리의 소설 '土地'의 무대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민족의 아픈 역사가 남긴 흔적은 아직껏 곳곳에 남아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도 고결한 정신은 이기지 못하는 듯 싶었다. 오늘날에도 매년 3월13일이 되면 동북지역 동포들이 대거 참여해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용정시는 전체가 한민족의 역사 교육장이나 마찬가지였다. 3.13열사능, 5.30폭동유적, 安重根의사가 사격훈련을 하던 문암골, 金躍淵 목사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장재촌, 시인 尹東柱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명동촌, 大成中學校(현 龍井中學校), 그리고 가곡 '先驅者'의 무대인 해랑강과 용문교, 비암산의 一松亭과 용두레 우물 등 민족혼이 깃든 현장이 줄줄이 이어졌다. 1946년 설립된 용정중학교는 현재 '용정중학교 력사 전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용정중학교는 문익환 목사, 이성국 목사 등을 배출했고 문재린 목사가 교사로 재직했던 곳으로 당시 조국 종교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사진 6 참조). 또한 건물 입구에 운동주 시인의 詩碑가 서 있었으며 2층 전람관에는 반일독립운동의 책원지요, 민족문화의 발상지인 이곳 용정일대의 면면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다(사진 7 참조). 백두산 등정만으로는 아



사진 8. 中朝 국경지대인 圖們에 흐르는 두만강

쉬우며, 반드시 이곳 龍井을 찾아 민족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좋을 성 싶다.

연길을 나와 두만강의 접경도시 圖們을 향했다. 도문은 두만강을 사이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에 분단된 조국의 슬픔을 이국땅에서 느끼게 되는 곳이다(사진 8 참조). 연길에서 도문까지는 버스로 두 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도문시는 우리나라의 60~70년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 하였다. 말 마차, 소 구루마, 자전거로 끄는 인력거, 구멍가게 등 모든 면에서 소싯적 우리 모습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윽고 막바지 고개를 넘자 준용하천 크기의 두만강이 보이고 좀 더 거슬러 오르자 中朝 국경초소가 있는 삼합대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이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로 다소 경계가 삼엄하고 긴장된 분위기 일 줄 알았는 데 잔잔히 흐르는 두만강처럼 이곳 풍경은 예상외로 평온하였다. 정말 손 내밀면 닿을 듯한 50m도 안되보이는 좁은 폭의 흙탕물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 우리네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언어를 쓰는 동포들이 사는데 이렇게 지척에 좁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국땅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 찻찻해 옴을 느낀다. 아! 세계 유일의 분단 조국이라는 부끄러움과 이 서글픔을 언제쯤이면 풀

수 있을까. 이 곳 도문 방문을 끝으로 우리 일행은 연결시를 벗어나 다시 북경으로 향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먼 길을 다녀온 기분이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민족의 얼과 혼이 깃든 백두산에 올라 천지의 신비로움과 비룡폭포의 꿈틀대는 생명력을 볼 수 있었고, 만주 연변에서 나라 잃고 살아온 조선족의 애환을 엿볼 수 있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일송정과 두만강을 바라보며 민족혼을 느낄 수 있었고, 강어

귀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진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보다 더한 체험의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아쉬움에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백두산!

아! 백두산! 하루 빨리 조국이 통일되어 백두산 정상에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다.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는 학수고대한다. 마르지 않는 신비의 샘물인 천지처럼 우리 겨레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일까 한다.



2005년도 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05년도 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논문 모집과 관련한 일정을 확인하시고 논문 제출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반 사항

- 일 자 : 2005. 3. 25(금) ~ 2005. 3. 26(토)
- 장 소 : 제주도 국제 컨벤션 센터
- 초청 연사 : 미정

2. 세부 일정

- 2004. 10. 1 ~ 2004. 12. 31 : 논문요지 및 논문전문 작성 및 제출
- 2005. 1. 1 ~ 2005. 1. 31 : 논문전문 심사
(제출된 논문은 모두 발표 기회(구두 또는 포스터) 부여 - 심사를 통해 구두와 포스터 발표 선정)
- 2005. 1. 2 ~ 2005. 1. 31 : 사전등록실시
- 2005. 2. 1 ~ 2005. 2. 28 : 논문전문 수정보완 및 최종본 접수, 사전 등록 실시
- 2005. 3. 1 ~ 2005. 3. 20 : CD논문집 및 인쇄본(구두 및 포스터) 제작
- 2005. 3. 25(금) ~ 2005. 3. 26(토) : 학술발표회

3. 참고 사항

구 분	사전 등록비	현장 등록비
비 회원	8만원	10만원
정 회원	5만원	7만원
학생회원	2만원	3만원

4. 특별논문집(제2회) 발간 추진 일정 (7월 31일 발간 예정)

- 학술발표회 구두 발표 논문 대상
- 2005. 4. 1 ~ 2005. 4. 30 : 수정 및 보완 논문 제출
- 2005. 5. 1 ~ 2005. 5. 31 : 논문 심사
- 2005. 6. 1 ~ 2005. 6. 30 : 최종 논문 제출 및 심사 완료